

住宅의 色彩設計 方法論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Design in Housing Color

金 起 煥*
Kim, Ki Hwan

Abstract

The importance of studying, planning and designing in Housing Color has been increased nowadays.

This Study as a methodology of studying in Housing Color attempts introduce a fieldt of these studies.

So, finding out the Environmental Color and Classifying the methodology of studying in Housing Color, and introduce precedent studies.

I. 序

주택의 물리적환경인 日照, 熱, 音 등은 可視的 특성 때문에 주거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 되고 있으나, 심리적 환경에 속하는 色, 行態 등은 소홀히 되기 쉽다. 특히 色彩環境은 그 접근방법이 체계적이기 보다는 즉흥적이고,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쉽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色彩環境은 생활의 배경이 되는 무대와 같고, 생활의 감정을 유도시켜 준다는 중요

성 때문에 새롭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계획, 조경학, 건축, 주거, 실내장식, 환경미술 등에서 同時多發의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70년대에는 극히 드물던 연구논문이 80년대에는 급격히 늘어나서, 비공식적인 집계로 85년도 이전에 발표된 색채계통의 논문수에 비해 86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이 더 많다는 것만 보아도 그 중요도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현실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조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색채에 관한 접근의 관점이 개인의 능력에서 체계적 연구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環境色彩(Environmen-

* 정희원, 釜山工業大學 建築工學科 助教授, 工博

tal Color)의 개념이 정립되었고, 1970년 이후 각 나라마다 앞다투어 연구, 실행되고 있다. 住宅色彩도 이러한 흐름에서 파악되고 연구되어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문분야로 존립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색채의 범주에서 주택색채가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분야의 연구의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색채와 관련된 여러분야의 연구를 찾아보는 검색적인 방법으로 논고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문의 검토는 주택색채에 접근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II. 環境色彩와 住宅色彩

1. 環境色彩의 개념 및 역사적 변천

색채를 건물, 설비, 집기에 응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국의 듀폰(Dupont)사에 의해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 이후 구미 각국에서는 色彩力學(Color Dynamics), 色彩工學(Color Engineering), 色彩計劃(Color Planning), 色彩調定(Color Turning) 등의 용어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효율성과 기능성을 그 주된 개념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장, 기기, 상품에 색채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도모하자는 色彩機能的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近代社會(Modern Society)에서 현대 사회-탈근대사회(Post-Modern Society)로 바뀌게 되는 1960년대 이후, 특히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70년대 이후 색채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생겼다. 근대사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기능성과 효율성이었다면 탈근대사회는 다양성과 개성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色彩에 대한 접근도 기능색채에서 벗어나서 개성화에 바탕을 둔 풍요로움을 지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에는 색채의

범람이라고도 할만큼 풍부한 색채가 生活에 도입되고 있다.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시킨 요인으로는 建築資材의 변화가 있다. 근대 건축 이후 국제주의(internationalism)가 왕성하던 50년대말까지는 건축자재가 한정되어 있었다. 건축물의 재료는 콘크리트, 철, 유리등의 천연자재였으며, 콘크리트조차 色彩를 하지않는 노출콘크리트(Exposed Conc.)를 사용하였다. 색채를 사용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의 부위에만 액센트로 사용하는 극기적인 것이었다. 그 후 건축자재는 급속도로 발달하여 알루미늄, 범람, 화학자재등의 人工資材로 바뀌었고 이러한 자재는 천연색이 없기 때문에 모두 새로운 인공색을 지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人工色이 도입되고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의 그래픽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그래픽이 유행한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아파트단지 등에 색채가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건축자재의 변화라는 흐름과 더불어 색채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커다란 변화를 맺게되었는데 그것은 環境色彩의 발전이다. 1960년대 후반 J.P. 랭크로등의 색채 전문가(Colorist)들이 都市環境에 색채와 슈퍼·그래픽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環境色彩가 발달하게 되었다.

랭크로는 1968년부터 1970년까지 프랑스 전역의 색채조사를 시도하여 지방별로 명료하게 地方色(Local Color)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方言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言感이 있듯이, 사람들의 生理에 무의식적으로 內在하는 지방색의 배려는 환경의 정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또한 인공자재의 발달이 자연과 조화되어 있는 촌락까지도 획일화시켜 개성을 없앨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 지방색을 조사, 연구하였다. 랭크로는 연구뿐 아니라 색채설계의 업적도 많이 남겨, 공장, 학교등의 색채설계뿐 아니라 그로노블의 뉴타운, 필의 뉴타운, 들즈의 뉴타운의 다양한 環境을 創出하였다.

그 후 色彩를 環境으로 인식하여 고유의 색채를 보존하고, 새로운 環境을 창조하는 개념은 각국의 도시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日本의 경우도 1970년 大阪만국박람회를 전후하여 이러한 개념을 도입, 도시를 색채를 갖는 建築部 環境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자각의 계기가 늦어서,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環境의 質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제 비로소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色彩設計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2. 環境色彩의 構成

색채를 이루는 環境은 보이는 景觀과 景觀의 대상이 가지는 色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景觀에 의한 環境色彩의 분류는 遠·近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遠景色, 中景色, 近景色, 近接色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遠景色(Landscape Color)이라 함은 4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지각되는 색인데 이 경우는 彩度가 급격히 떨어져 전체가 뿌옇게 보여 색채구별이 어려운 단계이다.

中景色(Streetscape Color)로 1km전후의 거리에서 지각되는 색으로 가로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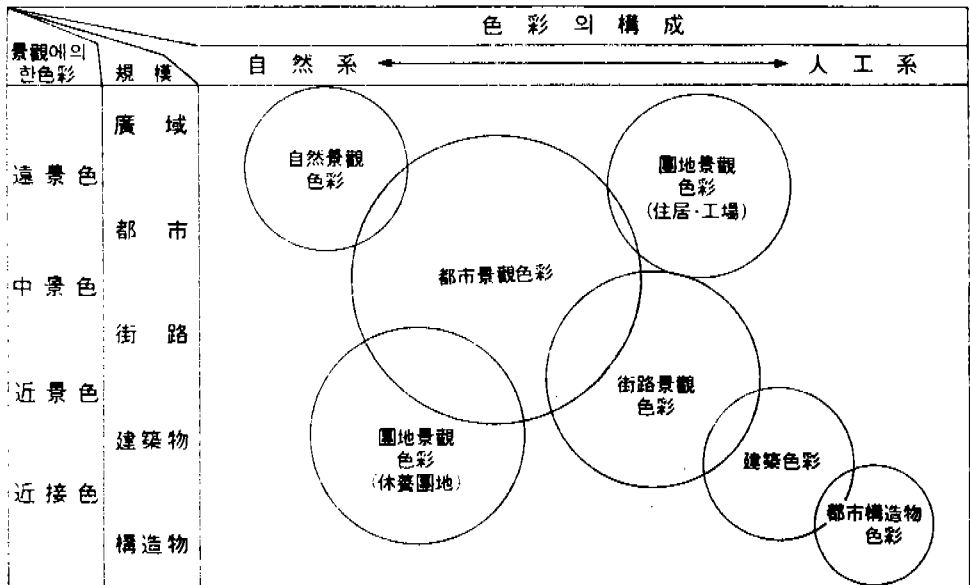
近景色(Townscape Color)은 건물의 형체와 색상을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지각되는 색을 말한다.

近接色(Wallscape Color)은 표면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색인데, 색상뿐 아니라 그 재료의 질감(texture)까지도 인식 가능하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은 자연계색채, 인공계색채, 그리고 이 두가지가 합쳐진 혼색계색채로 구별될 수 있다.

자연계색채라 함은 빛을 발하는 태양, 달, 별의 색채와 대기의 변화에 의해 달라지는 해양,

〈표 1〉 環境色彩의 構成



하천 물, 흙, 동물, 식물들의 색채까지도 포함하는 색이다.

혼색계색채는 자연계색채와 인공계색채가 어우러져 나타나는 색채를 말하는데 건물주변의 정원, 벤취와 가로등이 있는 공원, 호텔이 있는 해변등의 전체적 색이다.

인공계색채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채색되거나 구조된 물체의 색이나 가공된 색을 말하는데 건축물, 차량, 가구등의 색을 말한다.

환경색채를 분류하기 위하여 경관에 의한 색채와 대상의 색채를 行列(matrix)로 구성하여 보면 <표 1>과 같이 나타나는데 가장 커다란 규모는 자연경관이며, 도시의 구조물(실내가구 포함)까지 여러단계로 구성을 시킬 수 있다.

색채를 지각하는 視点으로 본다면, 경관색채는 하늘, 산등과 같이 眺望을 하는 단계이며, 도시경관색채는 차량을 이용하는 단계이며, 가로경관은 보행에 의해서 지각이 되며, 건축물의 색채는 보행 또는 정지상태에서 인식이 되고, 구조물은 정지상태에서 느껴지게 된다.

이러한 분류는 연구의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環境色彩의 要因

환경색채는 색채를 생활기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로 파악하는 것이다. 문화가 다양한 것과 같이 그 문화가 가지는 색채 또한 다양하며 복합적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다. 색채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自然的要因과 人爲的의 要因에 이해서 대별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위적요인이 그 영향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 물질적 풍요가 색채의 선택폭을 넓혀주었다는 의미와 도시화가 급격해지면서 인공색이 그 범위를 넓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이러한 흐름은 그 속도를 더해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리적요인, 민족적요인, 역사적요인, 유행적요인, 색채유도요인등에 대하여 흐름만 정리해 보고자 한다.

色彩와 地理的의 要因 : 빛은 색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色은 결정적으로 빛(光)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태양빛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이 풍부한 지역은 선명하고 화려한 색채를 좋아하고, 태양광이 적은 지역은 연한 회색기미의 색이나 약한 한색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남방지역의 추장이 붉은치장을 하는 것이나 에스키모인들의 녹·청색 선호는 이러한 이유로 풀이된다.

地理的으로도 산지, 분지, 해변에 따라 색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인간이 그 지역의 지리적환경에 적응을 하다보면 특정한 色彩性向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色彩와 民族的의 要因 : 빛 다음으로 색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眼球의 色과 피부의 색이다. 북유럽계민족은 綠色視覺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短派長色(녹색-청색)에 대해 민감하다. 반면 검은눈을 가진 라틴민족은 난색계에 이상하리만큼 편애를 한다.

피부색에 의한 영향도 커서 황인종은 빨강, 노랑, 金色을 많이 쓰고, 백인종은 청색, 빨강, 녹색, 보라, 오렌지색을 좋아하며, 흑인종은 청색, 빨강, 노랑등을 좋아한다고 한다.

色彩와 歷史的의 要因(傳統的의 要因) : 인간은 자기주변에서 본 것 즉 동물, 식물, 불 日出등을 색채로 묘사하였다. 여기에서 전통을 전제로 한 일종의 觀念聯合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관념연합은 色彩聯想이나 色彩象徵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역사를 가진 문화는 각기 다른 색채문화를 가지게 된다.

白色에 대한 반응만 보더라도 한민족은 素色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웃 중국인들은 喪色으로 不幸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色彩와 流行的要因 : 현대에 이르어 정보가 발달함에 따라 색채는 유행에 민감해 지고 있다. 의복의 색채를 볼때 신사복에서 회색, 검정, 한색계열이 유행할 때는 불경기의 前兆이거나 불경기를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난색계열이 유행하면 호경기의 징조라고 한다.

유행적요인은 건축물, 주택, 가구등에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간의 특색이 점차 줄어들고 유행적요인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色彩와 色彩誘導 : 색채가 유행을 이루는 데는 창조적 집단의 의도적 유도가 작용되고 있다. 환경색채는 색채전문가, 색채학자, 디자이너등의 전문인들이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일반인들은 그 영향을 받게된다. 우리의 색채환경도 수동적 입장에서 능동적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다.

4. 環境色彩에서 住宅色彩의 위상

住宅色彩의 목적을 단순히 아름다운 주택을 위한 것만으로 인식하기에는 위에서 살펴본 제반 要因들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더구나 엄청난 물량으로 팽창되는 주택이 정감없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무미건조해 지기가 쉬울 것으로 예견된다.

굳이 역사적 흐름이나 환경색채의 관점에서 주택의 색채를 보지 않더라도, 주택색채에 대한 연구나 설계의 필요성이 있다. 주택의 색채환경은 事前에 연구, 설계만 된다는 다른 물리적환경의 개선과 같이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生活의 質의 차이를 가장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주택의 환경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환경색채의 도입이 일시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간의 특성이 있고, 건물별 개성이 있으며, 안락하고 명량한 환경을 유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住宅 色彩設計의 接近方法

1. 研究 對象에 의한 분류

주택색채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분류해 볼 때 크게 두가지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色彩管理이고 하나는 色彩調節이다.

色彩管理(Color Management)는 색채의 통합적 관리를 말하며, 주된 대상은 가구, 커튼, 벽지, 집기 등이다.

가구는 거실에 쓰이는 소파류, 부엌·식당에 쓰이는 식탁, 싱크대, 찬장류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족해야할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 첫째, 용도에 적합할 것
- 둘째, 실내환경에 조화가 될 것
- 셋째, 제품의 재료에 적합할 것
- 넷째, 사용하는 사람에 적합할 것
- 다섯째, 개성을 연출할 것

그리고 가구나 집기는 실내환경에서 액센트가 될 수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크기나 실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서는 실내분위기를 활기있게 만들기 위해 채도를 높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벽지, 커어튼류는 가구에 비하여 면적이 크므로 실의 용도에 따른 연구가 각각도로 이루어져야할 분야이다. 현황조사도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주택의 최종 환경매체라는 의미에서, 시각상의 요구뿐 아니라 생리적, 심리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色彩調節(Color Conditioning)은 색을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색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생리적,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환경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주로 건축물로 일반주택은 물론 공동주택, 주거단지, 각급 건축물, 도시 구조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장색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내장색 중에서도 실별조절 등의 공간단위로 고찰물에 대한 연구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이 분야의 연구는 일반화 또는 표준화로 결과를 유도하기가 쉬운 단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연구되거나, 발간된 자료들을 대부분 일본의 기존연구에 영향을 받고 있는바, 지역간의 차이와 민족간의 차이등을 고려하여 재조정 되어야할 분야로 보여진다. 일본같은 해양문화는 색채가 엷은 반면 중국같은 내륙문화는 색채가 짙은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독자적인 연구 결과가 정립되어야할 분야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일본의 연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研究方法에 의한 분류

주택과 연관된 환경색채의 연구방법으로는 현황조사분석, 설문에 의한 색채의식조사, 기능별 색채사용규범 등으로 나누어 질 수있다.

현황조사분석은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의 단계라고 볼 수있다. 지역별, 단지별, 건물의 용도별, 부위별로 나누어 조사한 후 집단적 차이나 경향을 파악하는 부류의 연구가 이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있다.

조사분석의 도구로는 K.S.규정이나 문교부 표준색채에서 도입하고 있는 먼셀색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 조사방법으로는 육안비색법(눈으로 판별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즉, 먼셀의 색표를 가지고 현장에서 색을 눈으로 비교해 본 후 기록 정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의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병행되기도 한다.

첫째, 색채 파레트의 제작이다. 현장의 색채를 표본조사한 후 유사한 색표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확인한 후, 연구실의 먼셀색표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색표를 제작하는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로 한다.

둘째, 현장을 사진·촬영하여 인화한 후 현장에서 측정된 색과 비교해 보는 방법이다. 사진

의 현상, 인화하는 도중에 오차가 커서 정밀한 색을 측정하는 경우 보다는, 그 색이 사용된 부위별 면적을 계산하든지 특정한 색의 사용위치를 점검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셋째, 비디오에 의해 촬영을 한후 색측정기(Color Meter)에 연결하여 정밀한 색과 면적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기술이 뒷바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방법이다.

현황조사는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결과를 유도하는데, 이 분석단계에서 가장 어려움은 조사 색채의 색상별 종합의 단계에 있다. 실측은 정밀하게 되더라도 종합하는 단계에서 보통 11색상(무채색 포함)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전체의 경향은 알 수있으나, 세부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21단계의 색상을 사용하면서 부터는 색명이 너무 나열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하나의 난제는 명도나 채도는 수치가 등간격을 이루기 때문에 통계적 수치의 의미가 가능하나, 색상은 통계적 기법이 누계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분야의 연구결과는 색표로 제시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연구결과의 제시 방법에 대한 방법론 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설문에 의한 색채의식조사는 색채조절이나 색채관리의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다. 설문조사후 회귀분석등의 통계적 기법으로 집단간의 성향의 차이, 조사 내용간의 편차등을 알아볼 수있기 때문에 학문적 의의를 부가할 수있는 방법이다.

이 연구의 어려움은 조사용 도구의 개발이다. 조사인원의 동원이 어려운 관계로 현장에서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샘플을 제작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샘플의 크기, 조사장소의 분위기, 질문자의 태도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이러한 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슬라이드를 사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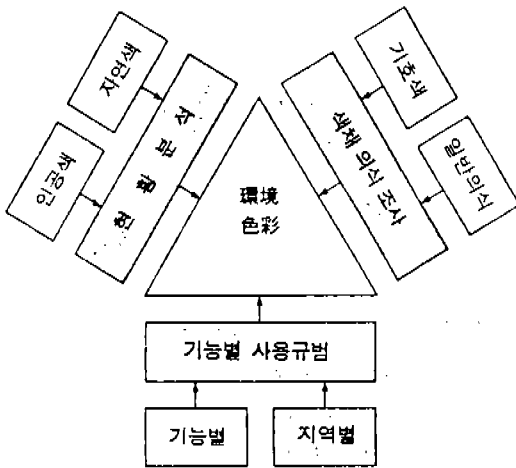
슬라이드 만으로 조사하기도 한다.

실내의 색채는 실제 크기의 방을 이용 조사한 경우가 외국에는 있으나 우리는 아직 연구의 규모가 못 따라가고 있다.

기능별 사용규범에 대한 연구는 제반 방법 중 최종의 단계이다. 이 연구는 앞의 학술적 기법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기는 하나, 다분히 주관적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종합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경험이 누적된 연구자의 제안은 수치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 분류한 세가지 방법론은 세분야가 모두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2>

<표 2> 환경색채의 연구방법 연계도



3. 研究主題에 의한 분류

주택의 색채는 주거학과 색채학의 접목의 산물이다. 그러나 주거학은 연구주제가 넓으며 색채학도 주관심 분야가 많이 분화가 되므로 주택색채에 대한 주제가 다양하다.

색채학의 주제에 대한 인접학문에서의 접근만을 보더라도, 빛의 방사에너지와 색의

재현등을 주로 다루는 물리학적 주제, 색의 성분합성방법을 다루는 화학적 주제, 빛의 자극이 눈과 뇌에 미쳐서 색을 느끼는 과정과 그들 서로의 해부학적 관계와 기능을 다루는 생리학적 주제, 색의 지각·감정효과·심미적 가치를 연구하는 심리학적 주제, 물리적 자극과 감각과의 관계에 대한 심리·물리학적 주제등이 있다.

색채심리적 연구의 주제가 주거학과 연관된 보편적 주제일 수 있으나, 점차 심리·물리적 주제와 색채생리적 주제로 넓혀져야만 연구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주거학을 연구하는 일부분으로 색채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입장보다는, 색채와 관련된 분야에 깊이를 더한 후 색채분야의 주제를 주택에 적용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일반적 연구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연구들이 최종적으로 귀착되는 연구주제가 있는데, 이것은 색채조화론이다. 색채조화론은 연구방법 및 응용범위, 주제의 범주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고 독자적 분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주제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또 권장하고 싶은 분야이다.

IV. 주택색채에 대한 기존연구 자료

우리나라의 색채분야의 연구가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로서, 주택색채와 연관지을 수 있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단체가 있다.

한국색채협회는 1988년 발족되었으며, 주된 인적 구성은 畫象研究(T.V.화면)와 미술계열, 물리분야의 연구자(광학), 화학분야의 연구자(사진), 건축분야, 의학분야의 연구자등이 모여 있다.

색채교육학회가 전국적으로 1988년 발족되었으며,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대학,

중·고교, 국민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색채강습회 등으로 색채학의 기초적분야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타 한국표준연구소의 광학연구실과 K.B.S의 부속 색채연구소 등이 있으며 아직 색채학회는 성립이 되어 있지 않다.

주택색채나 연관된 연구를 많이 해온 분으로 성균관대학교 건축과에 계시던 故 尹一柱교수를 들 수 있다. 尹교수는 1962년도 부터 「小住宅의 色彩調節에 對하여」, 「住生活의 色彩計劃」 등의 논문을 발표하여 이 분야의 선구적 역할을 하셨다. 기타 다른분들은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다음의 자료로서 대신하고자 한다.

다음의 자료는 주택색채의 연구를 위해 정리한 것이다. 차후 보완의 여지가 있으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위주로 정리된 것이다.

○ 단행본

1. Johannes Itten, 「Kunst der Farbe」/金守錫, 「色彩의 藝術」, 地球文化社, 1976.
2. 김용훈, 「색채 상품 개발론」, 靑佑, 1987.
3. 金學成, 「디자인을 위한 色彩」, 創美도서, 1982.
4. Faber Birren/金化中, 「색채 심리」, 東國出版社, 1985.
5. 盧相喆, 「應用 色彩學」, 釜山工業大學, 1988.
6. 朴度洋, 「實用 色彩學」, 二友出版社, 1985.
7. Luigina De Grandis, 「Theory and use of color」/朴墩緒, 閔哲泓(共譯), 「色彩—原理에서 活用까지—」, 國際도서, 1989.
8.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 미진사, 1989.

9. Maitland Graves, 「The Art of Color and Design」/裴滿實, 「디자인과 色彩」, 이대출판부, 1985.
10. Josep Albers, 「Interaction of Color」/徐載幸, 「실험에 의한 色彩構成」, 一志社, 1978.
11. 유관호, 「색채이론과 실제」, 靑佑, 1985.
12. Faber Birren. /尹一柱, 「면셀 色彩의 文法」, 民音社, 1977.
13. Faber Birren. /尹一柱, 「비렌 色彩의 原理」, 民音社, 1977.
14. 尹一柱, 「色彩學 入門」, 民音社, 1974.
15. Color Planning Center/張俊鎬, 「環境色彩 디자인」, 국제출판사, 1987.
16. 최영훈, 「색채학 개론」, 미진사, 1989.
17. 河龍得, 「韓國의 傳統色과 色彩心理」, 明志出版社, 1989.
18.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Basic Range for the co-ordination of colors for building purposes」, 1972.
19. Konard Gatz, 「Color in Architecture」, Reinhold Pub, Corp., 1961.
20. Joanne Nicholson·Judy Lewis, 「Color·Wonderful」, Bantom Books, 1986.
21. Martinal Duttmann, Friedrich Schmuck, Johannes Uhl, 「Color in Townscape」, W.H. Freeman & Company, 1981.
22. Tom Porter, Byron Mikellides, 「Color for Architecture」, Studio Vista, 1976.
23. Waldron Faulkner, 「Architecture and Color」, Wiley-interscience, 1972.
24. 原國政啓, 「色彩の使い方」, 理工學社, 1969.
25. 近藤恒夫, 「建築と色彩—應用編—」, 理工圖書, 1967.
26. 乾正雄, 「建築の色彩設計」, 鹿島出版, 1976.
27. 朝日新聞社 刊, 「色の彩時記—世界の色彩感覺—」, 朝日新聞社, 1983.

28. 近藤恒夫, 「景觀色彩學」, 理工圖書, 1986.
 29. 小町谷朝生, 「色彩のアルケオロジー」, 勁草書房, 1987.

○ 논 문

1. 일반색채 분야
 30. 김경영, 「보색대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색채인식에 관한 소고」, 한국조경학회지 Vol. 10, 1982.
 31. 金聖受, 「韓國人の色彩感覺 및 色彩聯想에 관한 研究—中·高等, 專門大學生을 中心으로—」, 漢陽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32. 이만영, 「색채명명법에 의한 심리요소색 연구」, 고려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33. 이외주, 「한국인의 색채감정」,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34. 전성천, 「한국인의 색채감각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1974.
2. 경관색채(+단지색채)분야
 35. 김기환 외, 「부산시 색채환경개선 연구」,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직할시지부, 1990.
 36. 金吉弘, 「都市環境色彩와 그 調和方案에 관한 研究—서울市內 아파트단지 建物表面色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7.
 37. 김홍곤, 「청주시가지 건물군 색채에 관한 조사연구, 주요간선도로변의 건축군을 중심으로」, 충북대 논문집 19집, 1980.
 38. 盧麗, 「都市環境의 視覺要素로서의 수퍼그래픽」,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8.
 39. 朴暎緒, 「都市環境과 色彩」, 건축사, 8705.
 40. 尹慶鎬, 「都市景觀에서 建物色想 構成의 滿足度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產業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41. 윤일주, 「서울 상가지역의 환경색 분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논문집 제 3 집, 1975. 2.
3. 건축 색채 분야
 42. 李起浩, 「街路의 視覺環境評價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產業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43. 강명구, 「건축배색」, 건축사 7월호, 대한건축사협회, 1979.
 44. 金起煥, 趙洪正, 「建築外裝色彩의 選定과 選好度에 관한 研究」, 釜山工業大學 論文集 第 31 輯, 1989.
 45. 김기환, 「환경색채와 건축문화」, 건축가, 1990. 8.
 46. 金成基, 「事務所 室內色彩計劃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47. 金正新, 「韓國傳統建築 色彩意匠의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48. 박기홍, 「실내공간 디자인의 색채조화와 배색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1981.
 49. 박돈서, 「한국건축의 채색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65.
 50. 박돈서, 「건축물 외장 구조색의 이미지와 2색 배색의 조화도 평가」,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1 권 제 1 호, 1985.
 51. 박돈서, 「건축물 외장 구조색의 이미지와 2색 배색의 조화도 평가」, 대한건축회 논문집 제 1 권 제 2 호, 1985.
 52. 朴暎緒, 「韓國現代建築 外裝의 色彩計劃方法論」,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53. 박돈서, 「우리나라 건축물 외장색의 표준화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5권 6호, 1989.
 54. 석조경, 「학교건물색채 연구—서울시내 중학교 건물 외부색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55. 엄성관, 「실내장식에 관한 색채」, 건축사 73년 5월호, 대한건축사협회, 1973.
 56. 유은미, 「색채계획의 환경디자인적 접근방법—건물의외장색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57. 尹一柱, 「國產建築材料表面의 色度分布의 調査(1)」, 成均館大學校, 科學技術研究 第3輯, 1975.
 58. 尹一柱, 「서울 商街地域의 環境色分布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15卷 40輯, 1971.
 59. 黃仁姬, 「建物外觀의 色彩計劃에 관한 研究—都市高層建物の 色彩現況調査를 中心으로—」, 延世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60. 이시웅, 「건축과 색채에 관한 연구」, 대전공전논문집 27호, 대전공업전문대학, 1980.
 61. 이시웅, 「현대건축의 내부배색에 관한 연구」, 대전공전논문집 29호 대전공업전문대학, 1981.
4. 주택색채 분야
62. 김경자, 「주생활을 주로 한 색채와 생활능률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1961.
 63. 金起煥, 「住宅外裝色彩와 地域別 清明日數와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64. 김기환, 송종석, 「지역별 청명일수에 따른 주택외장색채의 변화」, 건축학회논문집, 1990. 8.
 65. 김길홍, 「색채와 인테리어 : 좋아하는 색깔 고른 다음 같은 계통 곁들여야 조화」, 현대주택 94, 현대공론사, 1984.
 66. 金漢一, 「高層集合住宅 建物の 外部色彩計劃에 관한 研究」, 國民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67. 박상호, 「농촌 주택의 외장색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1985.
 68. 서윤경, 「주거공간의 채색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1983.
 69. 송원희, 「주택 거실 실내색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1977.
 70. 심한석, 「주택의 색채선택의 요령」, 가구월보 제 10호, 서울특별시 가구공업협동조합, 1977.
 71. 심원섭, 「집안 가득히 가을의 빛깔을 : 도배로 연출하는(마이홈)」, 현대주택 89호, 현대공론사, 1983.
 72. 오영아 외, 「주택내부의 색채에 관한 고찰 : 색채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중심으로」, 부학 15호, 연세대 가정대학, 1982.
 73. 윤일주, 「小住宅의 色彩調節에 對하여」, 부산대 논문집, 1962. 7.
 74. 윤일주, 「주택에 대한 색채 시중 기호조사 보고」, 건축Vol. 6 No. 5, 대학건축학회, 1962. 9.
 75. 윤일주, 「住生活의 色彩計劃」, 建築士, 1968. 11.
 76. 이홍열, 「건축물의 내부 색채에 관하여(공사실태조사)」, 부산시내 주택을 중심으로, 논문집(부산공전) 12호,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1971.
 77. 이홍열, 「건축물의 내부색채에 관하여, 주택을 중심으로」, 부산공전논문집 13권 2호, 국립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1973.
 78. 정수임, 「주거공간의 색채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1981.
 79. 조성희, 「주택내장의 색채사용에 관한 사용 연구」, 건축학회 논문집, 1990. 6.
 80. 채수황, 「주택의 색채연구」, 새충남 33호, 충남행정개발연구소, 1974.
 81. 홍동식, 「실내색채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 기술개발연구소 연구논문집 제 2권 제 2호, 충남대학교 기술개발연구소, 1975.
5. 色彩測定 資料(色票)
82. Munsell, 「Munsell Book of Color」, Mac-

beth division of Kollomorgen Corp., 1976.

83. 財團法人 日本色彩研究所, 「色名小事典」, 日本色研事業, 1981.
84. 尙學圖書, 「色の 手帖」, 小學館, 1986.
85. 大庭三郎, 「色彩の 世界」, 未來社, 1986.
86. 波川育由, 高橋ユミ, 「配色事典」, 河出書房新社, 1983.

V. 結

住宅色彩의 研究는 多學問的 성격을 띠고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環境色彩의 한 분야로의 접근이 요망된다. 또한 그 방법론적 접근이 다양한 것도 특색이다. 연계된 연구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住宅色彩를 비롯한 環境色彩에 대한 연구의 궁극적 목적을 새롭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

87. 財團法人 日本色彩研究所, 「建築デザイン色票」, 1964.
88. 日本色彩研究所, 「標準色彩圖表A」, 色彩教育研究會, 1981.
89.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도료용 표준색견본」, 1988.

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항상 상황지향적이어야 한다. 연구의 결과가 직접 설계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연계가 되어야한다. 특히 분석적방법을 사용할 경우, 그 분석된 결과들이 색채설계와 무관하거나 도움을 줄수 없는 경우가 야기될 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住宅色彩에 관한 研究라는 개념보다는 住宅色彩設計에 관한 研究라는 개념이 전제로 되어야할 것이다.